

家計簿를 통한 비목별 消費支出의 分析

(1967 年度)

Analysis of the home expenditure by home account book

目 次

I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II 결과 및 해석

1. 수집결과
2. 연구결과 및 해석

III 결 론

- 참고문헌
영문초록

서울대학교 家政大學

副教授 玄 己 順

Prof. Ki Soon, Hyun

College of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I. 序 論

1. 研究 目的

올바른 家計 支出은 家庭生活을 合理的으로 幸福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收入과 家族數의 差異에 따라 또는 家族構成에 따라 家計 支出의 差異는 달라질 것이나 計劃的인 生活을 하기 위하여 지나간 家計 支出의 實情을 費目別로 알아보는 것은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항상 日本, 美國, 英國 등의 나라의 家計 支出을 例로 삼아 家計指導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例들은 우리나라의 家庭生活을 中心으로 한 統計가 아니므로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부가 기록한 1957년도 家計簿를 通하여 主婦가 實際로 소비한 金額을 費目別로 調査하고 오늘날의 家庭生活에 있어서의 Angel 係數를 내보므로써 主婦들에게 家計의 豫算 生活面의 合理化를 도모하는 基本資料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本研究가 이루어 졌다.

2. 研究 內容

1. 연구내용 분류의 견해

가계부는 각 나라에 따라 비목분류가 조금씩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도 가계부를 출판하는 잡지사 또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 비목분류의 수와 명칭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된 6 종류의 가계부 비목이다.

대한가정학회지

<비목분류표>

여 원		주 부 생 활		
식 비	주식	곡식, 밀가루, 국수, 라면, 빵.	주 식	곡류 밀가루, 국수
	부식	고기, 생선, 채소, 자반, 컷잔, 미역, 마른반찬, 우유, 음료.		유아의 우유 인스턴트 식품
조미료	소금, 소오스, 화학조미료, 고추, 된장류, 깨, 간장, 설탕, 식용유, 빼터, 마가린, 식초, 후추, 마요네즈, 토마토케찹.	부 식	좌와같은	
기호품	술, 담배, 과자, 과일, 차류, 주우스, 콜라, 사이다, 분유, 전로도.	외 식	아빠의 점심값 어린이의 학교 급식비	
외 식	밖에서 식사한 것. 음식점에서 시켜온 경우	조미료	좌와같은	
주택 품비	땅세, 집세(상환비), 도지, 집 수리비, 취사용품, 식기, 정원기구, 원예기구, 화재보험.	기호품	맥주	
연 료	연탄, 장작, 프로판가스, 석유, 숯.	전기·수도		
전기·수도	수도, 전기, 초, 카바이트, 얼유.	연 료	경유	
피복비	양복, 옷감, 신, 모자, 속옷, 셔츠, 침구, 신발, 약세사리, 우산, 장갑, 양말, 수리비, 세탁비.	주거·비품	대지 사용료 냉·난방용품	
가사운영비	찬모, 침모, 화부, 식모, 운전수, 심부름꾼, 샅일군등의 인건비.	피 복	옷 세탁비	
의 료 생비	의료비, 약품비, 이발, 목욕, 화장품, 탈지면, 비누, 세제, 휴지, 우물, 수거비.	보건·위생	미용, 치료비, 파리아값	
육 교 육 비	학교, 유치원, 납입금, 교과서, 학용품, 그림책, 어린이도서, 특기지도비, 장난감, 어린이용돈, 어린이운동기구.	교양·오락	여행비	
문 화 비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료, 소풍, 영화, 연극, 각종친목비, 도서, 오락비.	교육·육아	수업료 등록금 기저귀값	
통 교 신 통	교통비, 우표, 전화료, 편지지, 엽서, 봉투대.	사 교	축의금, 부의금, 선물, 답례품	
세 공 공 요 금	세금, 동회비, 군경원호회비, 적십자비, 야경비, 수해및 한해재단구호비.	잡 비	용돈	
교 제 잡 비	경조상분비, 접대, 동창회비, 명절선물, 교환대, 친족, 친구보조비, 가정주부, 부모등의 용돈.	교통통신	자가용의 기름값	
저 축	은행예금, 각종보험(화재보험 제외) 귀금속, 부동산.	보험·지급	교육화재보험, 쫓돈	

家計簿를 통한 비목별 消費支出의 分析

여성저축생활중앙회			여 성 등 아			
저 축	주식투자, 껌돈		주 식	좌와같은		
식 비	주 식	곡류, 밀가루, 국수, 빵.	부 식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달걀, 건어류 콩과 그 제품.	
	부 식	육류, 채소, 건물. 조미료, 음료 등		식물성 식품	소채류와 해조류	
	간 식	어린이 간식		조미료	소금, 설탕, 간장, 된장, 고추장, 기름, 버터, 식유 깨소금, 식초, 화학조미료 마요네즈, 썬스, 도마도키 찹.	
	기 타	외식, 기타				
피 복 비	의복일체 바느질값, 우비.	기 호 품	커피, 홍차, 과일, 술, 담배, 음료.			
교 제 비	경조금, 손님접대비.	의 류 비	침구류			
주 거 비	부엌용품, 청소용품, 화재보험료.	주 거 비	가구. 화재보험료			
광 열 비	전기, 석유, 카바이트, 초. 연탄. 가스, 성냥.	광 열. 수도 비	전기로, 수도.			
가 운 영 비	수도료, 거름치기, 품삯, 정원가꾸기.	보 건 비	오물수거비, 치약, 칫솔, 휴지.			
교 육 비	교육보험료, 장난감.	교 육 비	운동구, 특기지도비, 교육보험료.			
보 위 생 비	소독비, 화장품.	문 화 비	접대, 친목회비, 외식, 극장입장료.			
교 통 신 비	우표, 전화, 교통비.	교 통 비	좌와같은			
문 화 비	각종회비	저 축	예금, 적금, 저금, 보험료.			
세 공 과 비	오물세, 조합비.	잡 비	가족의 용돈, 식모월급, 샅일품값.			
기타잡비	술, 담배, 기타, 비목에 속하지 않는 잡비.					

동 구 여 상 가 계 부	1969 년도 서울시(부녀과) 가계부
여성저축생활 중앙회의 가계부와 비목분류 및 그 내용이 같음.	비목분류와 (각기의) 그 내용이 없음.

2. 본 연구에서 택한 내용과 그 이유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1967년도 가계부 6종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비목을 분류하

여 연구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택한 비목의 내용은 여러 종류의 가계부에서 종합할 수 있는 비목들이 식생활비, 의생활비, 주생활비, 광열비, 교육비, 저축비, 교통 통신비, 문화비, 공과비 기타 잡비의 10 가지 비목으로 분류하였다.

3. 비목별 내용

식생활비에는 주식, 부식, 조미료, 기호품, 외식, 간식의 비목이며 의생활비는 피복비, 의류비, 주생활비에는 주택비품비, 주거비, 수도비, 광열비에는 연료비 및 전기료이다. 교육비는 육아, 교육비, 저축비는 저축, 보험저금이며 교통 통신비에는 통신 교통, 교통비가 이에 속하며, 문화비에는 교양·오락비, 사교비, 교제비, 문화비, 공과비에는 세금, 공공요금, 기타 잡비에는 가사운영비, 보건위생비 및 잡비가 이에 속한다.

3. 方法 및 節次

(1) 調査對象 選定

全國的으로 家計簿를 수집하여 資料로 삼고 싶었으나 대부분의 主婦들은 家計簿를 공개하기 싫어하므로 資料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67년도 “살림 잘하는 主婦賞”이라는 여원사 주최의 시상에 응모한 200부 가계부중 45부를 택하였다. 이 가계부들은 생활한 것을 사실대로 誠實하게 기록한 가계부들이며 자시, 도에서 골고루 선택하였다.

(2) 調査方法 및 研究方法

45家口의 家計簿에 기록된 年末 결산표에 나타난 費目別 消費金額을 費目別 月別로 나누어 기록하고 각 家口의 費目別 年間 消費金額을 計算하여 調査하였다. 다음은 45가구의 가계부를 총 生活費, 食生活費, 衣生活費, 住生活費, 光열비, 教育費, 公과비, 저축비, 文化費, 交通 通信費, 기타 잡비로 나누어 月別 消費金額을 기록하여 調査하였다.

이 조사된 소비 금액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 1) 總 生活費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2) 食生活費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3) 衣生活費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4) 住生活費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5) 光열비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6) 教育費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7) 저축비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8) 交通 通信費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9) 文化費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10) 公과비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 11) 기타 잡비의 月別 有意性 檢證 및 총 생활비에 대한 비율.

(3) 資料處理의 方法

각 生活費의 各 달에 있어서의 差異에 意義가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全體的인 差異는 變量分析^{*)}을 하였다. 또한 細部的으로 各 달과의 比較에 있어서는 Ducan의 新多元區域檢證法^{*)}을 채택하였다.

II. 結果 및 해석

1. 수집 結果

조사대상 家計부는 45 부로서 지역별 家計부수를 보면 표 1 과 같다. 서울시가 18 권, 충남이 3 권, 강원도가 3 권, 경남이 3 권, 경북이 4 권 전북이 3 권, 전남이 2 권, 충북이 1 권 경기도가 4 권, 부산시가 4 권이 된다.

<표-1> 對像 家計簿의 地域 및 家計簿數

주 소	가 계 부 수	주 소	가 계 부 수
서울 동대문구	4	경남 거창군	1
서울 서대문구	4	경남 진해시	1
서울 마포구	1	경남 거창읍	1
서울 영등포구	3	경북 안동시	1
서울 용산구	1	경북 대구시	1
서울 성북구	3	경북 칠곡군	1
서울 종로구	2	경북 문경군	1
인천시	2	전북 전주시	1
부산시	4	전북 군산시	2
충남 대덕군	1	전남 광주시	1
충남 옥천군	1	전남 해남군	1
충남 천원군	1	충북 청주시	1
강원도 화천군	1	경기도 여주군	1
강원도 양양군	1	경기도 시흥군	1
강원도 원주시	1		
총 계		45	

2. 연구 結果 및 해석

(1) 총생활비

1) 有意性 檢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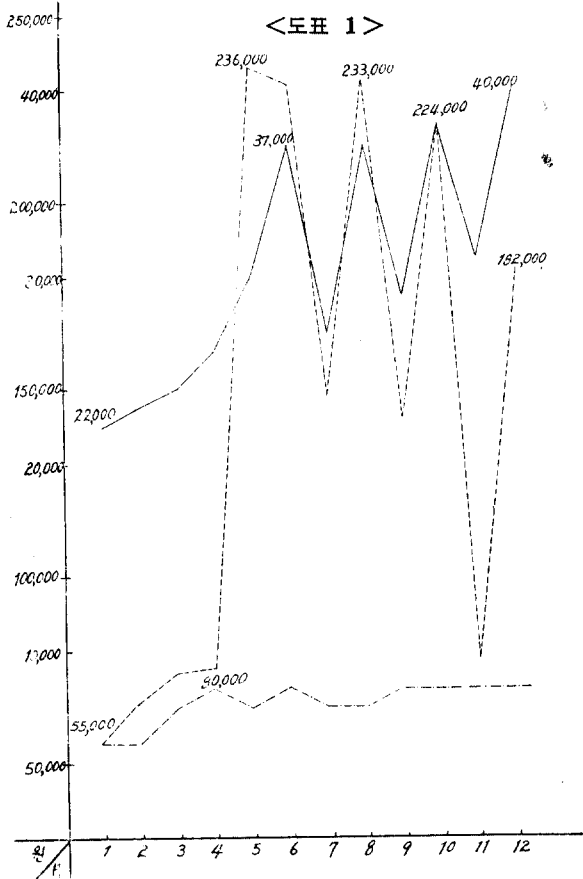
총 생활비의 월평균 비율은 그나라 경제 상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월 평균 총 생활비는 月間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표2 도표 1 에 의하면 총 생활비의 各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것을

보면 1월과 12월, 3월과 12월의 총생활비의 차이가 5퍼센트 수준에서 의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有意的인 差異는 무계획적인 生活로 인하여 생활이 支出의 균형을 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물가가 安定되지 못하여 지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계부는 기입하고 있으나 소비한 것을 기재하는데 목적을 둔것 같고 세밀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2) 월평균 지출

표 3에 의하면, 月平均 支出額은 1~2만원 미만이 33%, 2~3만원 미만이 23%, 3~4만원 미만이 16%로 4만원 미만의 지출을 한가



<표-2> 월별 총 생활비 有意性 검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 레 수	45	45	45	45	45	45	45
합 계	1,010,261	1,027,561	1,070,619	1,164,226	1,357,784	1,654,725	1,235,203
최 고	54,953	66,371	73,966	75,160	235,725	231,690	148,127
최 저	4,833	4,663	6,675	8,142	6,687	7,939	6,808
평 균 치	22,450	22,835	23,792	25,872	30,173	36,772	27,449
표 준 편 차	11,127.04	12,625.47	13,557.10	17,220.16	35,455.49	47,870.64	21,751.58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평 균
사 레 수	45	45	45	45	45		
합 계	1,681,895	1,304,212	1,690,536	1,408,859	1,806,154	16,412,035	1,367,670
최 고	232,626	141,635	224,035	77,828	181,502	1,003,225	83,602
최 저	6,963	7,859	8,344	8,166	8,086	91,799	7,650
평 균 치	37,375	28,982	37,567	31,308	40,137	364,712	30,393
표 준 편 차	44,171.16	22,374.91	43,896.44	18,606.67	41,334.04		
의 의 도	F=1.84*			*5 퍼센트 수준에서 의의있음			

<표-3> 총 생활비 비율

지출액	가구수	백분율
1만원 미만	2	4%
1만원~2만원 미만	15	33%
2만원~3만원 "	10	23%
3만원~4만원 "	7	16%
4만원~5만원 "	4	8%
5만원 이상	7	16%
합계	45	100%

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것을 보면 11월 나머지 달들과 1퍼센트 수준에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과 다른 달의 有意적인 차는 김장 준비에 있어서 매달 생활비를 적립하는 계획적인 지출이 아니라, 11월에 일시불로 지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일시불의 지출이 가정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 식품의 저장 및 가공법이 발달되지 않아 식품의 가격 차이가 많은데 基因한다고 본다.

2) 식생활비 비율

가계지출에 있어 식생활비는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저소득 가정에 있어서는 50~70%를 차지하고 있다²⁾. 소득에 대해서 식생활비의 비율은 항상 반비례하며, 따라서 식생활비의 비율은 생활수준을 나타낸다.

Engel 係數와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정이 72%로 과반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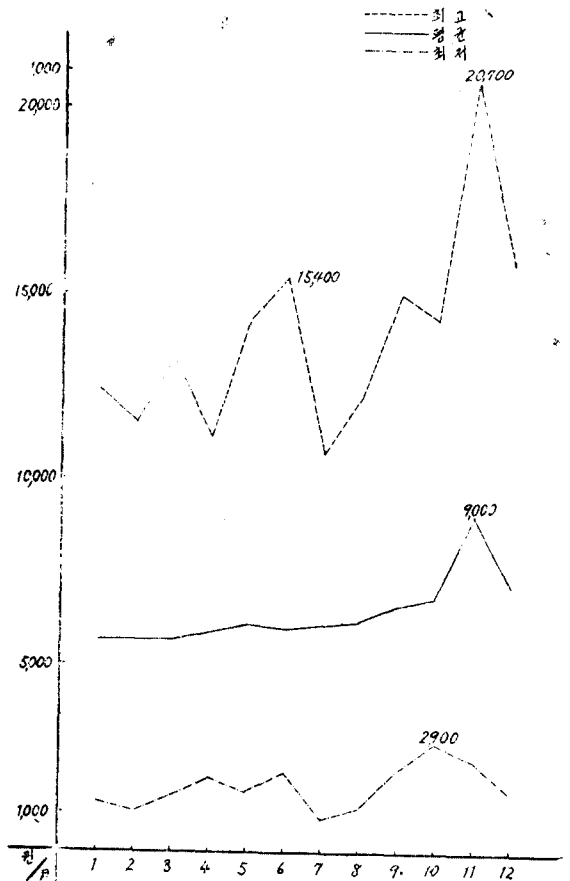
(2) 食生活費

生活費 支出의 內容은 家庭의 經濟的 條件과 生活環境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 중에서도 食生活費의 비율은 가정의 경제상태를 表示하는 것이다.

1) 有意性 검증

표 4. 도표 2에서의 같이 식생활비의 각달

<도표 2>



<표-4>

월별 식생활비 有意性 검증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 례 수	45	45	45	45	45	45	45
합 계	257,575	258,177	258,049	263,789	273,377	270,212	273,085
최 고	12,355	11,458	13,236	11,077	14,292	15,395	10,680
최 저	1,346	1,060	1,450	2,034	1,589	2,130	880
평 균 치	5,724	5,737	5,734	5,862	6,075	6,005	6,069
표 준 편 차	2,531.58	4,191.31	3,721.71	1,260.02	3,145.29	2,751.02	2,885.33

월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平 均
사 례 수	45	45	45	45	45		
합 계	278,527	298,982	305,461	406,802	318,344	3,462,380	288,532
최 고	12,200	14,954	14,297	20,725	15,820	167,029	13,919
최 저	1,210	2,240	2,940	2,493	1,560	24,909	2,075
평 균 치	6,190	6,644	6,788	9,040	7,074	76,342	6,412
표 준 편 차	2,735.53	3,078.80	2,685.78	4,530.44	3,415.69		

의 의 도 F=3.60** ** 1 퍼센트 수준에 의의 있음

<표-5>

식생활비 비율

비 율	가 구 수	백 분 율
10% 미만	3	7%
10~20% 미만	15	33%
20~30% 미만	4	9%
30~40% "	16	36%
40~50% "	5	11%
50~60% "	2	4%
합 계	45	100%

Engel 係數에 있어서는 표5에 의하면 10~20% 미만인 가구가 15(33%)이며, 30~40% 미만인 가구가 16(36%)이다. 표 6의 Engel 계수와 비교해 보면 20%미만 가구가 18 가구로서 40%가 상류생활에 속한다고 보겠으나, 이것은 가계부상에 기록된 식생활비만을 계산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 가구들은 自農 가구들인 관계로 이보다 적은 비율

<표-6>

Engel 係數와 생활수준^o

경 제 상 태	계 수	경 제 상 태	계 수
上流 生活	20%	多少 위안할수 있는 生活	40%
여유있는 생활	25%	多少 건강을 유지할수 있는 生活	45%
多少 여유 있는 生活	30%	겨우 生存 가능한 生活	50%
위안 할수 있는 生活	35%	限界 以下の 生活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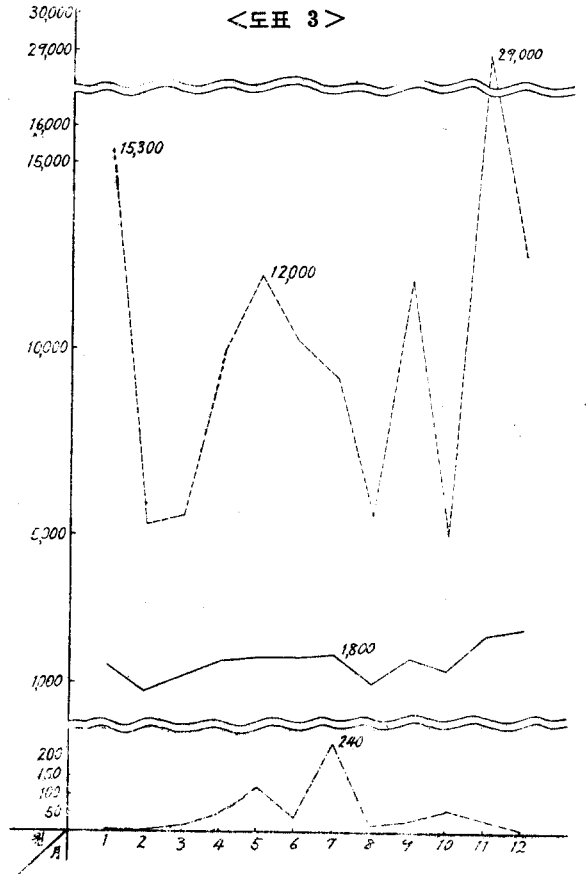
을 나타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30~40% 미만이 16 가구라는 것은 표 6에 의해 中程度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3) 衣生活費

衣生活費는 食生活에 다음가는 重要한 生活 費目이며 人間 生活에 있어 소득에 따라 또는 주부의 생활양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본다.

1) 有意性 검증

표 7, 도표 3에 의하면 의 생활비의 각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것을 보면 2월과 11월, 2월 12월, 3월과 12월, 8월과 11월, 8월과 12월 10월과 12월이 각각 5퍼센트 수준에서 의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것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11월이 2월과 8월에 비해, 또 12월이 2월, 3월, 8월, 10월에 비해 의생활비의 지출이 많은 것은 高價인 동부 준비관계로 인한 듯 하다. 이것을 비추어 보아 가장 의생활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동부 준비에 있어서 11월과 12월에 많은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식생활비에 있어서도 11월의 지출이 有意인 差를 나타내는 것을 보아 이



<표-7>

월별 의생활비 有意性 검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 례 수	45	45	45	45	45	45	45
합 계	68,546	36,509	55,133	73,031	77,922	77,864	79,253
최 고	15,300	5,260	5,460	9,780	12,030	10,220	9,310
최 저	5	5	15	50	120	35	240
평 균 치	1,523	811	1,225	1,623	1,732	1,730	1,760
표 준 편 차	2,658.33	1,069.71	1,483.36	2,237.89	2,236.24	1,944.31	2,101.98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평 균
사 례 수	45	45	45	45	45		
합 계	45,623	78,603	62,158	102,428	113,239	870,309	72,526
최 고	5,500	11,775	4,970	28,850	12,460	72,050	6,004
최 저	20	30	60	40	10	5,331	444
평 균 치	1,014	1,747	1,381	2,276	2,517	19,340	1,612
표 준 편 차	1,366.76	2,323.97	1,369.56	4,355.16	2,582.24		
의 의 도	F=1.91* *5 퍼센트 수준에서 의의있음						

와 같은 무계획적인 생활은 가정경제 및 사회 경제 구조상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2) 의생활비 비율

표 8에 의하면 의생활비는 2%~5% 미만의 가구가 18, 5%~8% 미만의 가구가 9, 8%~10% 미만의 가구가 6으로 33가구가 2~10%미만의 의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계 지출 모형^{*)}을 보면 “저소득 가정에 있어서는 13%이고(월수입 15,000원) 그 이외의 가정에 있어서는 8~10% 미만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10% 이상의 의생활비

<표-8> 총생활비에 대한 의생활비 비율

비율	가 구 수	백 분 율
1~ 2%미만	5	11%
2~ 5% "	18	40%
5~ 8% "	9	20%
8~10% "	6	13%
10~15% "	6	13%
15% 이상	1	2%
합 계	45	100%

를 지출한 7가구는 소득이 적거나 또는 의생활에 중점을 두고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1~2% 미만의 가구가 5, 2~5% 미만의 가구가 18, 합계 23가구는 의생활에 많은 비용을 드리지 않고 생활을 한 것이라고 본다. 요즘 새로운 옷감과 새로운 형태의 의복이 많이 생김에 따라 주부의 생활 계획없는 사치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대상

이 된 가정은 大體의으로 사치성 있는 소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4. 住生活費

주생활비는 소득의 증감에 따라 별다른 큰 변화는 없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주생활비도 생활비목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1) 有意性 검증

<표-9> 월별 주생활비 有意性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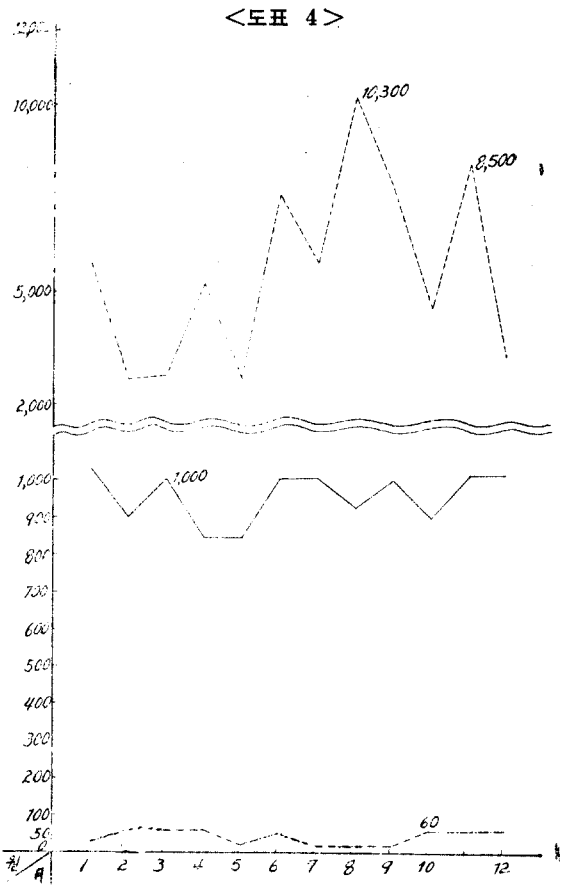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사 례 수	45	45	45	45	45	45	45
합 계	31,470	28,748	59,349	148,464	143,024	56,709	192,138
최 고	8,690	7,960	30,370	50,260	76,840	8,185	127,650
최 저	10	40	30	10	60	20	30
평 균 치	699	639	1,319	3,299	3,178	1,260	4,370
표 준 편 차	1,444.87	1,354.84	4,515.49	9,475.82	11,611.20	2,166.16	18,753.22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平 균
사 례 수	45	45	45	45	45		
합 계	424,311	170,631	178,823	154,645	386,613	1,974,925	164,577
최 고	204,680	24,137	94,320	40,319	142,900	534,027	44,502
최 저	10	20	35	10	30	520	43
평 균 치	9,429	3,792	3,974	3,437	8,591	43,88	73,657
표 준 편 차	37,160.64	16,446.07	14,385.31	8,714.11	29,716.89		
의 의 도	F=1.45						

주생활비의 각 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표 9, 도표 4에서 보는 것 같이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것을 보면 1월과 8월, 2월과 8월이 각각 의의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의 것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생활비 비율

표 10에 의하면 1~3% 미만을 소비한 가구가 11, 3~7% 미만을 소비한 가구가 1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가계지출 모형을 보면 주생활비는 2~3% 미만이며*, 이것과 비교하면 많은 비용을 주생활비에 소비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집수리 재료의 다양성과 임금의 증가로 因하여 주생활비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생활양식의 變化와



<표-10>

총 생활비에 대한 주생활비 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1% 미만	7	16%	7~10% 미만	6	14%
1~3% 미만	11	24%	10~15% 미만	4	9%
3~7% 미만	13	29%	15% 이상	4	9%
			합 계	45	100%

家族의 文化生活程度에 따라 주생활비도 중요한 비목이며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가계지출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주생활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광 열 비

광열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

1) 有意性 검증

표 11 도표 5에 의하면 광열비의 각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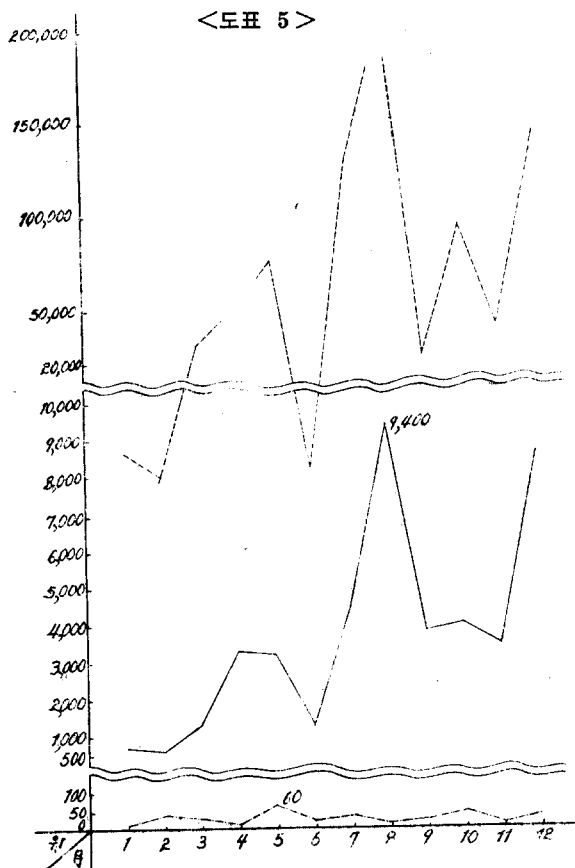
<표-11>

월별 광열비 有意性 검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 레 수	45	45	45	45	45	45	45
합 계	57,746	40,089	46,336	38,008	38,011	45,845	48,241
최 고	5,832	2,700	2,795	5,155	2,705	7,583	5,790
최 저	25	57	60	60	20	50	20
평 균 치	1,283	891	1,030	845	845	1,019	1,071
표 준 편 차	1,049.84	721.60	677.28	871.08	598.38	1,212.36	1,327.31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평 균
사 레 수	45	45	45	45	45		
합 계	41,675	45,677	40,444	53,872	50,744	546,688	45,55
최 고	10,259	7,829	4,590	8,470	3,300	27,195	2,26
최 저	20	15	60	60	60	697	5
평 균 치	926	1,015	899	1,197	1,128	12,149	1,018
표 준 편 차	1,520.36	1,540.87	847.09	1,436.31	862.93		

의 의 도 F= 69



세부적으로 보아도 의의 있는 것은 없었다.

2) 광열비 비율

광열비 비율은 3~6%를 소비한 가구가 22가구인 47%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계지출 모형을 보면 6~8%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 석유, 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연탄, 숯, 성냥 등을 합한 것인데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연료로 사용한 것만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표 5와 표 7에 의하면 광열비의 최고와 최저의 간격은 너무 많으며 이것은 가정의 생활양식에도 관계가 있으나 또한 농촌에서는 연료에 많은 비용을 소비하지 않고

家計簿量 통한 비목별 消費支出의 分析

<표-5> 총 생활비에 대한 광열비 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1% 미만	1	2%	4~6% 미만	13	29%
1~3% "	15	33%	6~7% "	3	7%
3~4% "	9	20%	7% 이상	4	9%
			합계	45	100%

있는 까닭이라고도 생각된다.

(6) 교육비

교육비는 가족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 대상이 된 이 가구의 가족구성을 자세히 몰라서 평가하기 대단히 어렵다.

1) 有意性 검증

<표-13> 월별 교육비 有意性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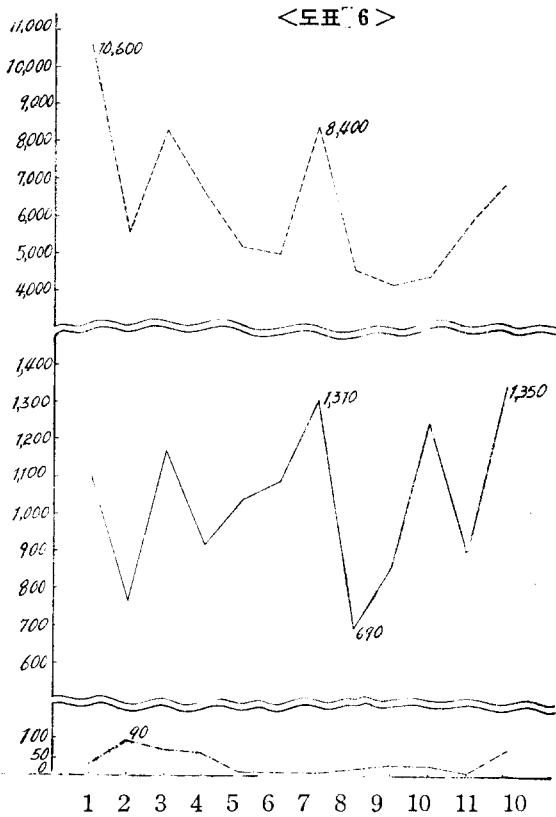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례수	45	45	45	45	45	45	45
합계	49,220	38,834	52,608	41,559	46,758	48,866	59,300
최고	10,600	5,565	8,290	6,575	5,180	4,950	8,415
최저	26	90	70	60	10	10	10
평균치	1,093	774	1,169	723	1,039	1,086	1,318
표준편차	1,979.24	1,261.29	1,811.18	1,402.64	1,477.69	1,334.82	2,026.91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사례수	45	45	45	45	45		
합계	30,948	38,703	56,433	40,666	60,511	560,406	46,700
최고	4,621	4,184	4,400	5,790	6,852	55,016	4,585
최저	20	30	30	10	70	66	5
평균치	688	860	1,254	904	1,345	12,453	1,038
표준편차	1,128.73	1,018.27	1,412.78	1,322.60	2,000.51		
의의도	F=1.02						

표 13을 보면 각 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아도 의의적인 차가 있는 것은 없었다.

2) 교육비 비율

<표-14> 총 생활비에 대한 교육비 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1% 미만	11	24%	5~10% 미만	3	7%
1~3% "	18	40%	10~15% "	5	11%
3~5% "	5	11%	15% 이상	3	7%
			합계	45	100%



수한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7년도 우리나라의 저축의 목표는 수입의 15%로

우리나라 가계 지출 모형에 의하면 중고교생이 있는 가구에서는 13% 정도이고 대학생이 있으면 15% 이상의 교육비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표 14에 의하면 3~5%를 지출한 가구가 11%, 5~10% 지출한 가구가 7%, 10~15%를 지출한 가구가 1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저학년의 자녀를 가진 가구라고 생각된다.

교육비에는 자녀수와 교육을 시키는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 계획 없이는 대단히 곤란한 상태라고 본다.

(7) 저축비

응모된 가계부는 저축을 비교적 많이 한 가구로서 저축이 우

<표-15> 월별 저축비 有意性 검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 례 수	45	45	45	45	45	45	45
합 계	310,178	367,217	341,640	347,323	493,777	787,681	336,784
최 고	32,738	32,662	52,563	32,453	216,810	211,355	52,788
최 저	434	500	500	600	80	530	650
평 균 치	6,893	8,160	7,592	7,718	10,973	17,726	7,484
표 준 편 차	7,136.24	9,125.60	8,484.91	8,540.80	31,498.29	41,606.11	8,633.02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평 균
사 례 수	45	45	45	45	45		
합 계	614,023	414,225	753,404	360,083	365,800	5,502,135	458,511
최 고	100,570	40,488	112,982	40,655	40,388	693,957	57,830
최 저	650	510	650	320	300	4,820	420
평 균 치	13,645	9,205	16,743	8,002	8,129	122,270	10,189
표 준 편 차	22,275.93	9,842.18	34,280.96	8,133.98	7,755.31		
의 의 도	F=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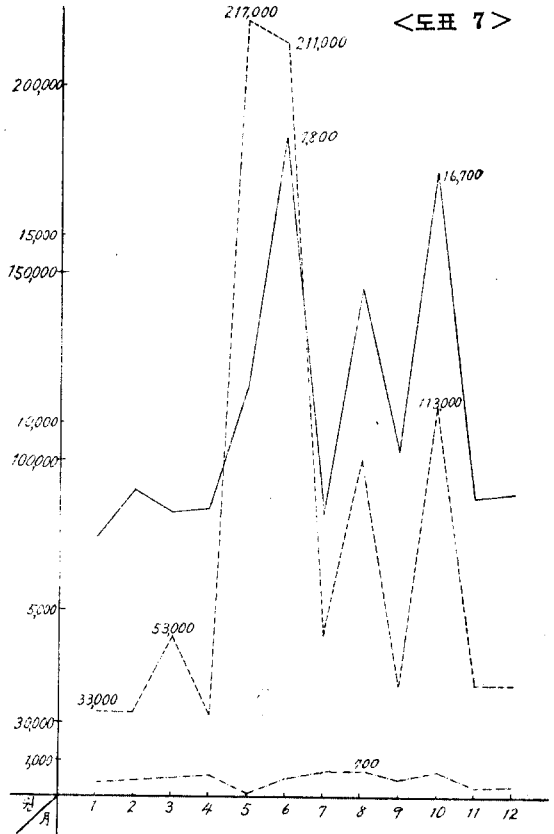
결정하였으나 대단히 힘든 상태이
었다.

1) 有意性 검증

표 15와 도표 7에 의하면 저축
비의 각 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
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적으로 보면 1월과 6월, 3월과 6
월, 4월과 6월, 6월과 7월이 각
각 의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의 달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하절에 있어
많은 저축을 할 수 있고 동절에는
저축액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동절에 다른 생활비가 많이
소비되는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2) 저축비 비율

표 16을 보면 30% 이상을 저축한
가구가 18가구로 40% 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16>

총 생활비에 대한 저축비 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1% 미만	2	4%	10~20% 미만	12	27%
1~5% 이상	3	7%	20~30% "	9	20%
5~10% "	1	2%	30% 이상	18	40%
			합 계	45	100%

(8) 交通 通信費

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교통 통신비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여야 한다.

1) 有意性 검증

표 17 도표 8에 의하면 교통 통신비의 각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3월과 4월, 3월과 12월, 7월과 12월, 9월과 12월이 각각 의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의 달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획적인 생
활을 하지 않고 급할때나 또는 돈이 있을 때는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까닭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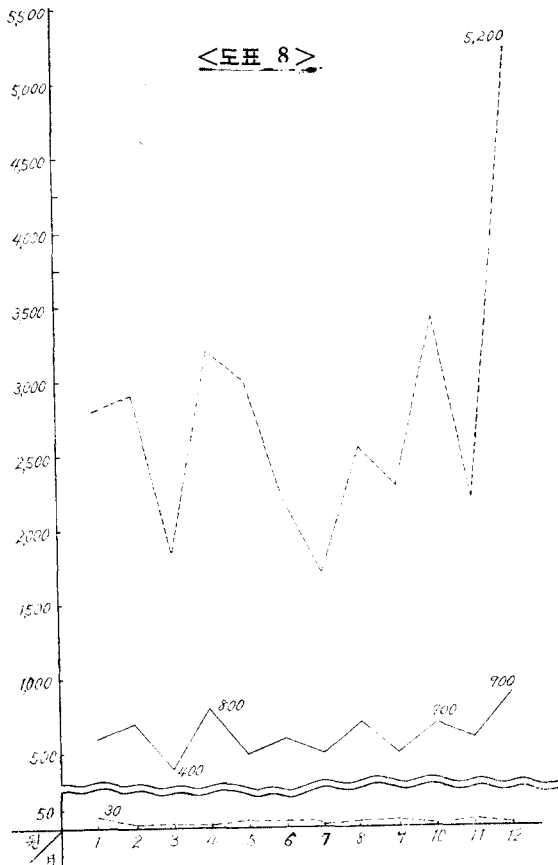
<표-17>

월별 교통 통신비 有意性 검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례 수	45	45	45	45	45	45	45
합계	27,688	29,302	17,835	35,265	24,413	28,040	22,089
최고	2,790	2,928	1,850	3,216	2,990	2,200	1,716
최저	31	7	5	7	16	20	7
평균치	615	651	393	793	542	623	490
표준편차	608.42	696.36	440.29	988.33	598.49	749.44	591.93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사례 수	45	45	45	45	45		
합계	30,866	23,105	31,288	27,987	39,634	337,530	28,128
최고	2,568	2,340	3,393	2,190	5,194	22,487	1,874
최저	20	23	7	20	10	142	12
평균치	685	513	695	621	880	7,504	625
표준편차	763.31	557.00	810.98	806.56	1,166.64		

의의도	F=1.47						
-----	--------	--	--	--	--	--	--



많은 금액은 아니나 교통통신비에 있어 月間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생활하여야 한다. 교통비의 상승에 따라 교통 통신비는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 예산에 맞는 지출을 하도록 할 것이다.

2) 교통 통신비 비율

가계 지출 모형에 의하면 “교통비는 자녀들의 통학 거리에도 많은 관계가 있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교통수단으로 가장 값이 싼 버스를 이용하여도 교통 통신비는 6~10%를 차지 하게 된다”. 표 18에 의하면 1~3% 교통비를 지출한 가구가 47%로 되어 있는 것은 조사 대상이 도시만이 아니었고 교육비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상가구들의

家計簿量 通한 비목별 消費支出의 分析

<표-18>

총 생활비에 대한 교통 통신비 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0~1% 미만	13	29%	3~4% 미만	2	4%
1~2% "	11	24%	4~5% "	0	0
2~3% "	10	23%	5% 이상	9	20%
			합계	45	100%

차녀들이 저학년이 많은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9) 문화비

가족의 활동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또는 가정생활형태가 향상됨에 따라 문화비는 증가된다. 날로 증가하는 간행물과 우리들의 정서면이나 정신면의 만족을 위한 서적 또는 오락, 취미 생활들은 반듯이 경제가 수반되어야만 하므로 문화비는 어느 가정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1) 有意性 검증

<표-19>

월별 문화비 有意性 검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례수	45	45	45	45	45	45	45
합계	25,719	34,384	27,775	21,230	31,385	69,565	27,737
최고	3,395	5,820	3,830	2,515	6,260	45,920	3,110
최저	60	130	130	130	30	50	20
평균치	572	764	617	472	698	1,546	616
표준편차	553.80	1,153.84	571.60	465.84	1,013.59	6,709.89	688.82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사례수	45	45	45	45	45		
합계	27,947	28,220	29,885	27,647	38,285	389,779	32,482
최고	3,080	6,110	1,920	2,590	5,440	26,985	2,249
최저	6	60	150	180	180	1,651	13.7
평균치	621	627	664	614	851	8,662	722
표준편차	736.09	945.49	424.64	580.29	1,049.49		
의의도	F=.57						

<표-20>

총 생활비에 대한 문화비 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1% 미만	10	22%	3~4% 미만	6	13%
1~2% "	12	29%	4~5% "	4	8%
2~3% "	9	20%	5% 이상	4	8%
			합계	4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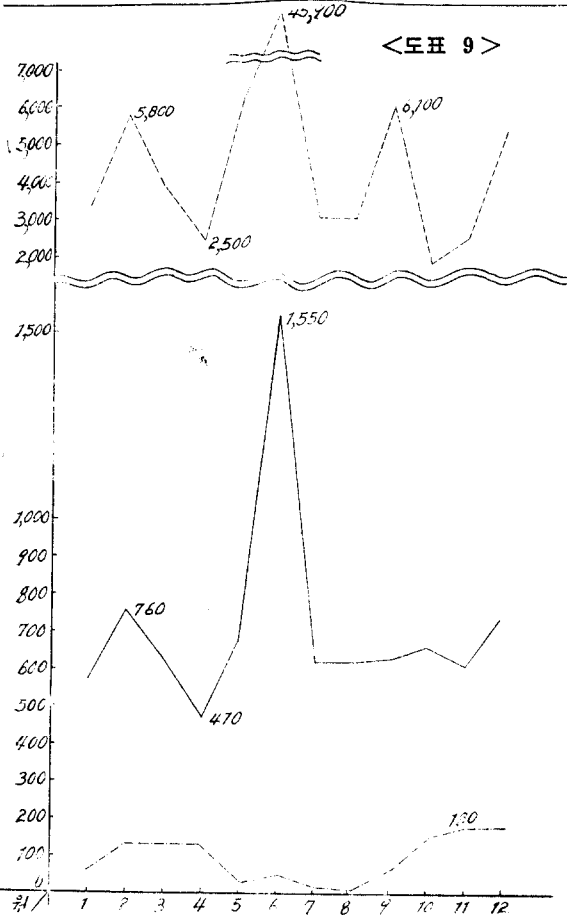


표 19, 도표 9에 의하면 문화비의 각 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4월과 6월이 의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의의 달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비 비율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다른 비목에 비하여 문화비는 낮은 실정이다. 가계 지출 모형^{*)}에 의하면 2~5%가 문화비로 표 20에 의하면 1% 미만 지출한 가구가 22%, 1~2% 미만 지출한 가구가 29%로 2% 미만 지출이 51%라는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교육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비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10) 공과비

공과비는 모든 세금 또는 회비를

<표 21>

월별 공과비 有意性 검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 레 수	45	45	45	45	45	45	45
합 계	23,482	14,273	37,281	17,052	18,062	12,942	20,566
최 고	3,830	2,928	12,000	3,530	3,660	2,927	3,330
최 저	70	20	40	30	20	20	20
평 균 치	522	317	828	379	401	288	457
표 준 편 차	932.31	510.64	1,865.51	722.44	799.07	507.20	775.11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평 균
사 레 수	45	45	45	45	45		
합 계	17,046	23,651	20,585	64,838	23,257	293,053	24,420
최 고	2,927	5,546	3,155	41,924	3,930	48,547	4,045
최 저	30	20	20	20	20	100	8
평 균 치	379	526	457	1,441	517	6,512	543
표 준 편 차	607.36	1,057.82	853.78	6,293.53	859.04		
有 意 性	F = .88						

말함이며 어느 가정에서나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할 비목의 하나이다.

1) 有意性 검증

<표-22>

총 생활비에 대한 공과비 비율

비율	가수	백분율	비율	가수	백분율
0~1% 미만	28	64%	3~4% 미만	2	4%
1~2% "	6	13%	4~5% "	2	4%
2~3% "	2	4%	5% 이상	5	11%
			합계	45	100%

공과비의 각 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월과 11월, 5월과 11월, 6월과 11월, 7월과 11월, 8월과 11월, 9월과 11월, 10월과 11월이 각각 의의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의 달은 의의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과의 비율

가계지출 모형에 의하면 공과비는 1~2%에 해당되어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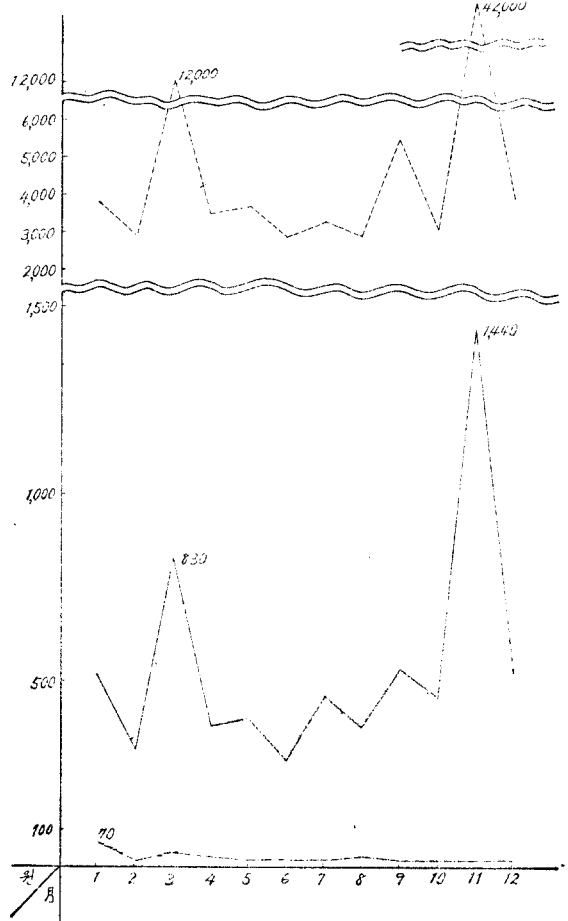
표 22에 의하면 1% 미만이 64% 1~2% 미만 13%로 과반수의 가구는 1% 미만의 공과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본다.

흔히 우리들은 세금이 많다고는 하나 년간으로 생각하여 평상시 1년에 세금을 매월 조금씩 적립한다면 큰 어려움없이 공과비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1) 기타 잡비

우리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기타 잡비는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가족의 활동사항에 따라 또는 가족의 성장에 따라 기타 잡비는 증가된다고 본다.

<도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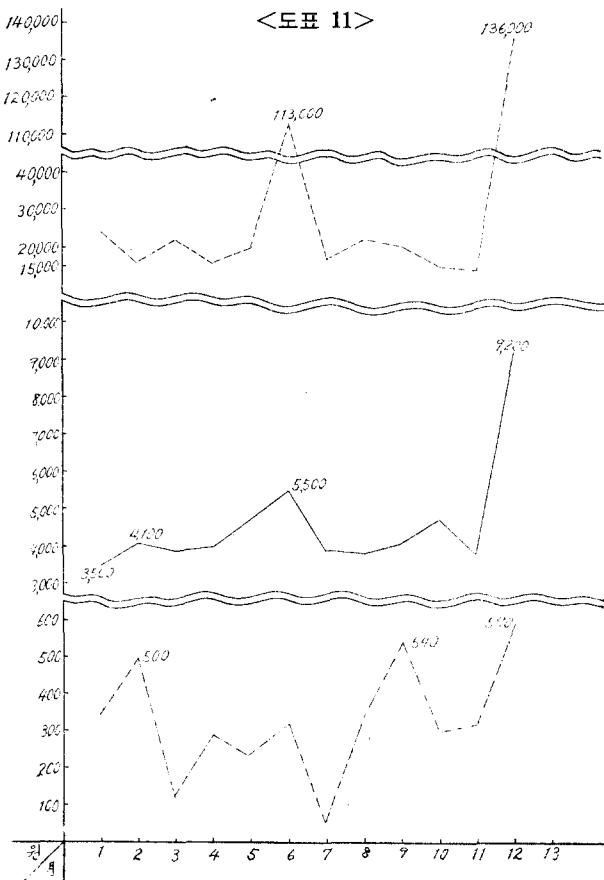
<표-23>

월별 잡비 有意性 검증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례 수	45	45	45	45	45	45	45
합계	158,637	184,028	174,596	178,504	211,325	247,001	176,010
최고	23,850	15,572	21,715	15,805	19,952	113,460	17,140
최저	350	505	130	290	240	320	50
평균치	3,525	4,090	3,880	3,967	4,696	5,489	3,911
표준편차	4,233.31	3,535.60	4,315.69	9,387.02	4,873.69	16,430.86	3,649.00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사례 수	45	45	45	45	45	45	45
합계	170,929	182,416	212,036	169,891	409,727	2,475,100	206,258
최고	22,015	20,285	15,042	14,150	135,760	175,975	14,665
최저	343	539	300	318	590	810	68
평균치	3,798	4,054	4,712	3,775	9,105	55,002	4,584
표준편차	3,923.60	3,939.82	4,221.00	3,073.58	22,024.13		

有意性	F=1.22						
-----	--------	--	--	--	--	--	--



1) 有意性 검증

표 23, 도표 11 의하면 각 달에 있어서의 차이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12월과 나머지 달이 각각 의의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의 달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이 가장 지출이 많은 것은 새해 맞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잡비 비율

우리 나라 가계 지출 모형^{*)}을 보면 “소득의 차이에 따라 기타 잡비의 비율은 차이가 있으며 2~6%선으로 되어 있다.”

표 24에 의하면 5~10%의 가구가 9가구(20%), 10~15%의 가구가 13가구(29%)로 5~15% 사이가 49%로 거의 반에 가까운 가정이 지출 모형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

<표-24>

총 생활비에 대한 잡비 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비율	가구수	백분율
0~5% 미만	2	4%	15~20% 미만	6	14%
5~10% "	9	20%	20~25% "	8	17%
10~15% "	13	29%	25% 이상	7	16%
			합 계	45	100%

고 있다. 기타 잡비가 10% 선을 넘는다는 것은 생활 계획에 있어 면밀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III. 結 論

1967년도 “살림 잘하는 주부상”에 응모한 가계부중 45부를 각 시도에서 골고루 선택하여 월별 비목별 의의도 검증을 하여 가계부의 계획성 여부를 타진하여 보고, 비목별 Engel 계수를 가계지출 모형에 비교하여 가계 예산 생활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연구가 이루어 졌다.

1. 총생활비에 있어서는 비목별 월별 有意性 검증결과 有意的인 差를 나타내었다. 즉 가계부를 쓰되 지출액의 기록에 지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가계부는 아니었다.

2. 식생활비에 있어서는 11월에 김장준비로 인하여 다른 달과의 有意的인 差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김장의 일시불로 말미아마 가정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3. 의생활비에 있어서는 11월과 12월이 다른 달에 비하여 有意的인 差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동부준비에 있어 많은 금액을 일시불로 하였기 때문이다.

4. 주생활비, 광열비, 교육비, 저축비, 교통 통신비, 문화비, 공과비, 기타 잡비에 있어서는 각 달에 있어서 비교적 有意的인 差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문헌

- ① 玄己順; 低所得家庭의 食生活 實態調査 가정학회지 6호.
- ② 李基春; 家庭의 經濟力이 家庭經營에 미치는 영향. 1969.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③ 玄己順; 生活 계획을 위한 家計支出模型 1968~1969.
- ④ 李仁喜; 家庭經營과 管理. 修學社.
- ⑤ 金秉島外 4人; 家政學論. 1962.
- ⑥ 崔恩淑; 長期 家族 계획 模型에 관한 研究. 196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⑦ Paulena Nickell and Jean M. Dorsey. 「Management in family living」
- ⑧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9 p.34~35.
- ⑨ 정범모; 교육 심리 통계적 방법. (서울 배영사, 1964). p203~224.
- ⑩ 김호권, 차재호; 교육심리 실험설계법(서울 배영사, 1966). p.167~172.

- ⑪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 “한국통계월보” 1969.
- ⑫ 여원 ; “가계부” 1967.
- ⑬ 주부생활 ; “가계부” 1967.
- ⑭ 여성저축생활중앙회 ; “가계부” 1967.
- ⑮ 여성동아 ; “가계부” 1967.
- ⑯ 동구여상 ; “가계부” 1967.
- ⑰ 서울시 부녀과 ; “가계부” 1967.

Abstract

Forty-five home account books were randomized by electing “prize for good home manager” in 1967 through all over the country in Korea.

With this sampling analyzed monthly home expenditure in different item by test of significance, and compared with model of home expenditure and this results. Hope this analysis will help to the house wife for better plan home expenditure and will develop in scientific way of life in home managing.

1. Significance test of home account books in their items and in month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total living expenses.

In other words, they did not work out a budget, and their home account books were nothing but a record expenses.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nthly expenditure for food caused by the preparation of cabbage pickle(Kim Jang) in November.

This payment in a lump to the cabbage pickle brought about unbalance to home economic.

3. Compared with others, in November and in December we could find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monthly expenditure for clothing.

Payment in a single sum to the preparation of winter clothing caused it.

4. It was noted that there were not such comparabl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nths as to be mentioned for housing, light and heating, education, saving,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ulture, taxes.